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가정적 요인 분석

김민경, 김은주 /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연구목적 및 방법 : 오늘날 컴퓨터 사용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일상생활이 보편화되고 있다.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반응을 통제하고 조절하기가 어려워 여러 가지 문제노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거나 중독의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및 개입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원 지역 중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실태와 인터넷 중독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 사용에 있어 개인적인 요인과 가정적인 요인이 인터넷 중독과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설문지는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인터넷 사용실태, 인터넷 중독 실태 등을 포함하여 개발하였으며, 3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87명(95.7% 참여율)만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조사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X²(Chi-square)검증, 그리고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 첫째, 인터넷 중독 실태를 살펴보면, 일반 사용자군이 90.6%로 가장 많았고,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7.6%), 고위험 사용자군(1.8%)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 실태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많았다($p < .01$).

둘째,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라 개인측면 인터넷 중독 요인을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고위험 사용자군에서 가장 높았으며($p < .001$), 스트레스 인식, 우울, 감각추구 성향에서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서 가장 높았고($p < .001$), 고위험 사용자군, 일반사용자군 순이었다. 가정측면 인터넷 중독 요인을 살펴보면, 양육태도에서는 고위험 사용자군이 가장 높았고($p < .01$), 친밀감에서는 일반 사용자군이 가장 높았다($p < .05$).

셋째, 인터넷 이용 경력에 따른 개인측면 인터넷 중독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1년 미만 이용한 학생이 가장 높았으며($p < .05$), 자기통제력은 7년 미만 이용한 학생에서 가장 높았다($p < .01$). 가정측면 인터넷 중독 요인

에서는 의사소통, 가족기능, 친밀감은 7년 미만 이용한 학생이 가장 높았고 ($p<.05$), 정서적 지지는 9년 이상 사용한 학생이 가장 높았다($p<.01$).

넷째, 인터넷 이용 시간에 따른 개인측면 인터넷 중독요인을 살펴보면, 자아 존중감은 30분 미만 사용한 학생이 가장 높았고($p<.05$), 스트레스 인식에서는 30분~1시간 이용한 학생이 가장 높았다($p<.05$). 우울은 3~4시간 이용하는 학생이 높았으며($p<.01$), 감각추구성향은 4시간 이상 이용하는 학생이 가장 높았다($p<.01$). 가정측면 인터넷 중독요인을 살펴보면, 양육태도는 30분 미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생이 가장 높았고($p<.05$), 가족기능은 30분~1시간 이용하는 학생이 가장 높았다($p<.05$).

결론 : 청소년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중학생에게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개인 측면에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은 높여주는 방향으로 스트레스 인식과 우울은 낮추어주는 방향으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일관된 양육태도를 갖도록 하며 자녀에게 긍정적 지지가 필요하다.

keywords : 인터넷 중독, 청소년